

*사진 출처 : 챗GPT 생성

numbers

vol. 358 | 2026.11.17.

일터 신앙 실태 1. 크리스천 직장인의 삶

직업을 소명이라 인식(67%)하나,
일터 신앙 실천(36%)과의 간극 크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2025 다문화 혼인 통계
2. 구직자의 면접 경험과 입사 포기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직업을 소명이라 인식(67%)하나, 일터 신앙 실천(36%)과의 간극 크다!

오늘날 기독교인 직장인 상당수(67%)는 직업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소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성도들이 매일 살아가는 일터 현장에서의 신앙 실천은 여전히 큰 한계와 갈등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직장사역훈련센터·일터개발원·청지기캠프·솔로몬일터교회·목회데이터연구소는 기독교인 직장인, 직장 신우회 활동자, 비기독교인 직장인, 담임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터 사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를 이번 호부터 다음 호까지 2회에 걸쳐 연속으로 다루고자 한다.

주요 결과를 보면 기독교인 직장인 절대다수(91%)가 일터 신앙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경험은 28%에 불과했다. 또한, 일터 신앙 지원 방안으로 직장인들은 실질적 상담(37%)을 갈망하는 반면, 목회자는 설교(50%)를 꼽아 현장과 목회자 간의 시각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넘버즈 358호〉에서는 기독교인 직장인의 직업 소명 의식과 일터 신앙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성도들의 일터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교회가 준비해야 할 실질적인 목회적 지원 방향을 모색해 본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터 신앙 실태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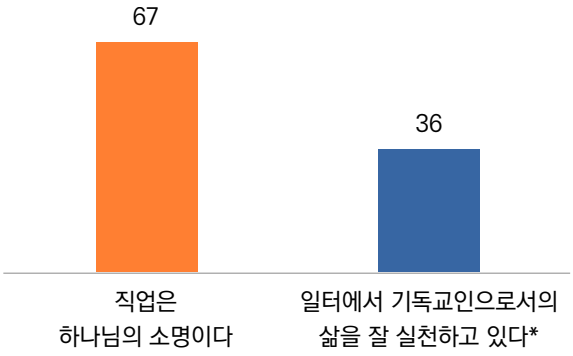
구분	기독교인 직장인	신우회 활동자	비기독교인 직장인	담임목회자
조사 대상	만20세~59세 기독교인 직장인	만20세~59세 신우회 활동자 직장인	만20세~59세 비기독교인 직장인	전국교회 담임목회자
표본 규모	500명(유효표본)	205명(유효표본)	500명(유효표본)	500명(유효표본)
표본 추출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비례할당	편의추출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비례할당	편의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4.4%p	-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4.4%p	-
조사 기간	2026년 8월 3일~8월 10일(총 8일)	2026년 8월 3일 ~8월 20일(총18일)	2026년 8월 3일 ~8월 10일(총8일)	2026년 8월 3일 ~8월 19일(총17일)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온라인 패널 이용)	온라인 조사 (온라인패널 및 신우회 네트워크를 통한 URL 배포)	온라인 조사 (온라인 패널 이용)	모바일 조사 (문자를 통한 URL배포)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담임목회자 조사는 교회 규모에 따른 가중치 부여)			
조사 의뢰 기관	일터개발원직장사역훈련센터 · 일터개발원 · 목회데이터연구소 · 청지기캠프 · 솔로몬일터교회			
조사 기관	주식회사 지앤컴리서치			

01 [일터 신앙의 현실]

직업을 소명이라 인식(67%)하나, 일터 신앙 실천(36%)과의 간극 크다!

- 기독교인 직장인의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직업은 소명'(67%)이라는 인식은 높은 반면, 실제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비율(36%)은 이에 미치지 못해 인식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보였다.

[그림] 직업 소명 의식과 일터 신앙 실천의 간극 (각각 동의율, 기독교인 직장인,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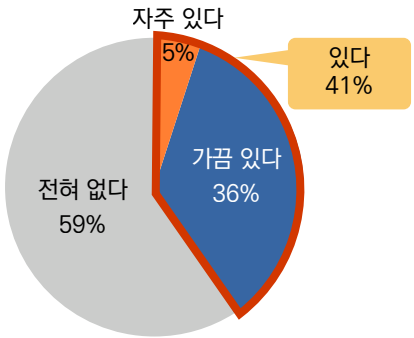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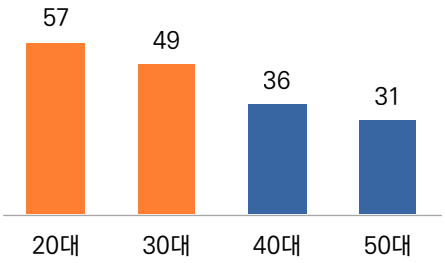
크리스천 직장인 10명 중 4명(41%), 기독교인임을 숨긴 적 있다!

- 직장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숨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1%(가끔+자주)로 10명 중 4명꼴에 달했다.
- 특히 연령별로 보면 20대(57%)와 30대(49%)의 '숨김 경험' 비율이 40~50대(30%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젊은 직장인 층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
- 이는 사회초년생의 낮은 연차와 직장 내 눈치, 혹은 세속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신앙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림] 기독교인임을 숨긴 경험 여부
(기독교인 직장인,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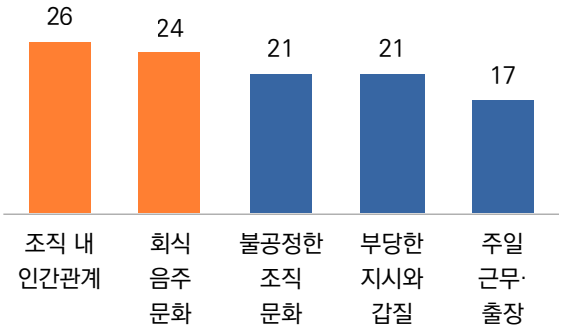
[그림] 기독교인임을 숨긴 경험 '있다' 비율
(연령별, 기독교인 직장인,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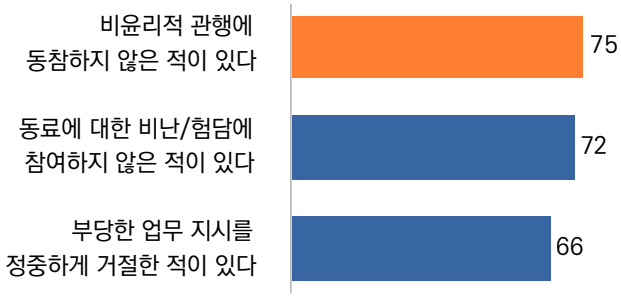
일터 갈등 속에서도, 크리스천 3명 중 2명 이상 '신앙적 소신' 지켰다!

- 일터에서 겪는 신앙적 갈등 요소로는 '조직 내 인간관계'(26%), '회식·음주 문화'(24%), '불공정한 조직 문화'(21%), '부당한 지시와 갑질'(21%) 등이 다양하게 지목됐다.
- 이러한 일터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 직장인 3명 중 2명 이상은 '비윤리적 관행 동참 거부'(75%), '동료 험담 불참'(72%), '부당한 지시 거절'(66%)을 통해 일터에서 신앙적 기준을 지켜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일터에서 경험한 신앙적 갈등
(기독교인 직장인, 1+2순위, 상위 5개, N=500, %)



[그림] 일터에서 신앙적 기준을 지킨 경험
(기독교인 직장인, '그렇다' 비율,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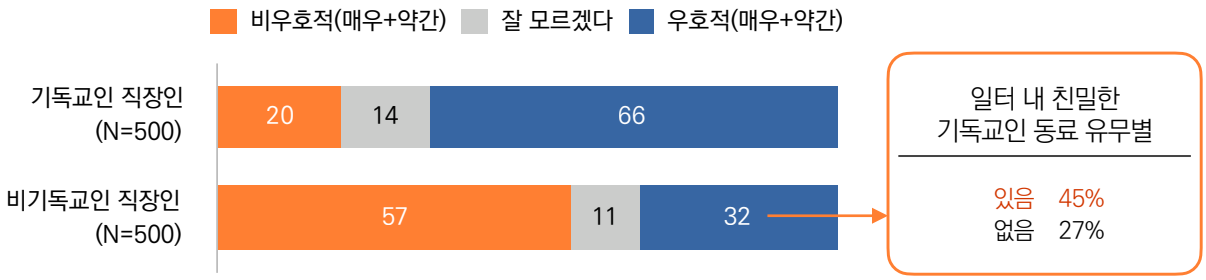


02 [비기독교인이 바라본 기독교인 직장인]

비기독교인 직장인,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다'!

- 일터 내 동료들이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태도를 물은 결과, 기독교인 직장인은 66%가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실제 비기독교인의 우호적 응답률은 기독교인 직장인들의 예상과 달리 32%로 절반에 그쳤다.
- 흥미롭게도 '일터 내 친밀한 기독교인 동료가 있는' 비기독교인의 우호도(45%)는 없는 경우(2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터에서 맺는 관계의 친밀함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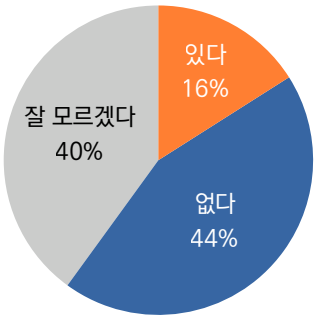
[그림]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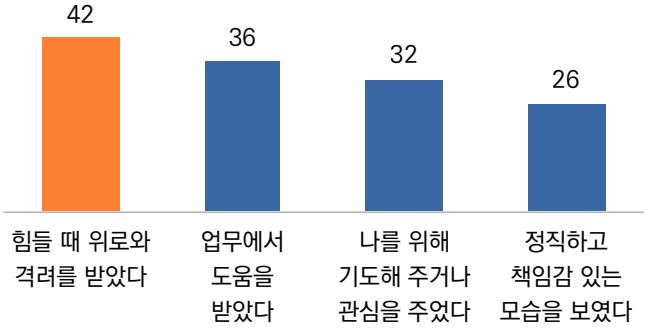
기독교인 동료의 '힘들 때 위로', 기독교에 호감 요인!

- 비기독교인 직장인 중 일터 내 기독교인 동료에게 도움이나 좋은 인상을 받은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 긍정적 경험 내용으로는 '힘들 때 위로와 격려를 받음'(42%), '업무에서 도움을 받음'(36%), '기도와 관심'(32%)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일터에서 전하는 관심과 지원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형성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림] 기독교인 동료로부터 긍정적 경험 유무 (비기독교인 직장인,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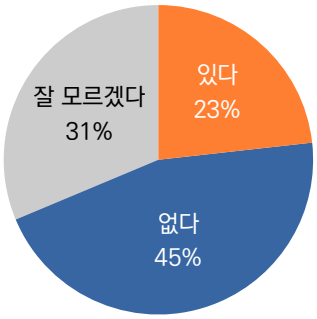
[그림] 긍정적 경험 내용 (긍정적 경험을 한 비기독교인 직장인, N=78, 상위 4개, %)



전도·언행 불일치 태도, 기독교에 부정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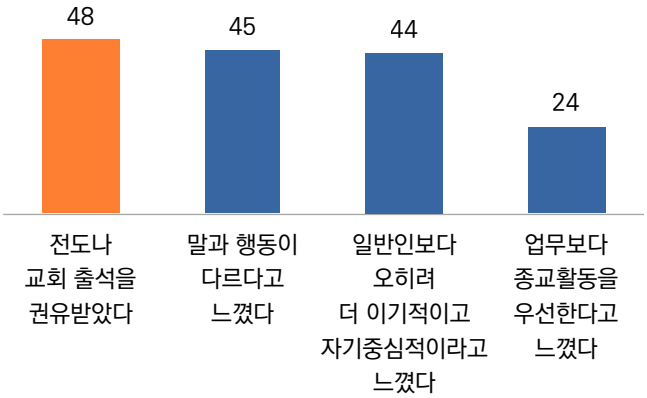
- 비기독교인 직장인 중 일터 내 기독교인 동료로부터의 부정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 부정적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기독교인이 꼽은 주된 내용으로는 '전도나 교회 출석 권유를 받음'(48%),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느낌'(45%), '일반인보다 더 이기적·자기중심적임'(44%)이 각각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는 일방적인 전도 방식이나 언행 불일치, 이기적 태도 등 이중적인 모습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림] 기독교인 동료로부터 부정적 경험 유무 (비기독교인 직장인, N=500)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그림] 부정적 경험 내용 (부정적 경험을 한 비기독교인 직장인, N=117, 상위 4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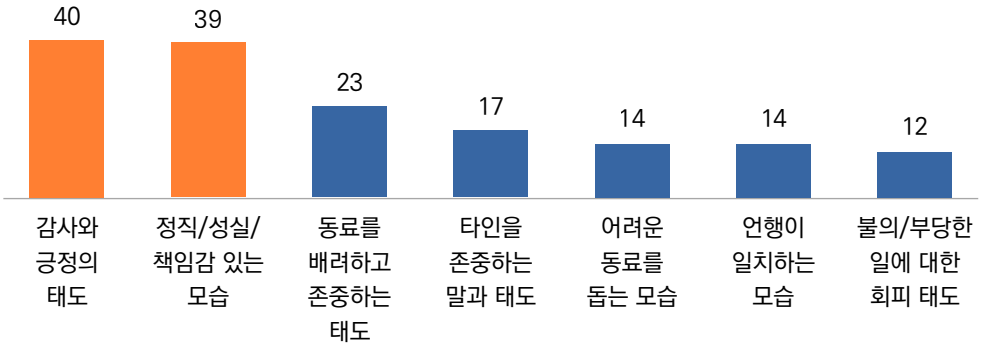


03 [일터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의 모습]

일터에서 기독교인다운 모습, '감사·긍정의 태도'와 '정직·성실'!

- 일터에서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으로 '감사와 긍정의 태도'(40%)와 '정직·성실·책임감 있는 모습'(39%)이 나란히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동료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23%), '타인을 존중하는 말과 태도'(17%) 등의 순이었다.
- 이는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일터 선교의 핵심으로 종교적 행위보다 태도와 성실성, 인격적 배려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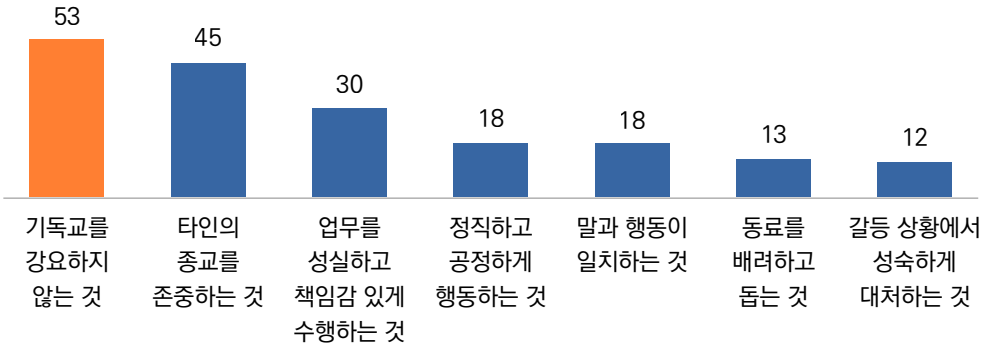
[그림] 일터에서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모습 (기독교인 직장인, N=500, 1+2순위, 상위 7개, %)



비기독교인의 기대, '종교 강요는 피하고, 업무 성실·책임감 보여달라'!

- 일터 내 기독교인이 신뢰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행동으로 비기독교인 직장인은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는 것'(53%)을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 '타인의 종교를 존중하는 것'(45%), '업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30%) 등이 뒤를 이었다.
- 즉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동료에게 원하는 핵심은 일터에서 신앙적 성향을 강제하기보다 타인을 존중하며, 본업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앞선 기독교인 직장인 응답과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일터 내 기독교인이 신뢰받기 위한 행동 (비기독교인 직장인, N=500, 1+2순위,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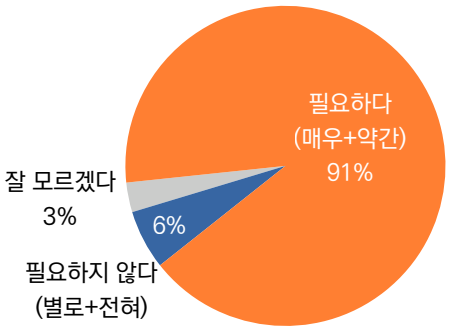


04 [교회의 역할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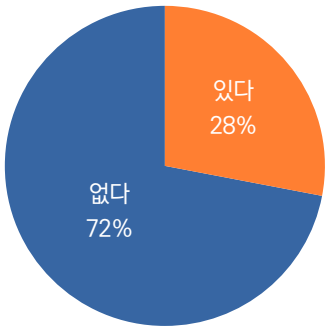
일터 신앙 교육 필요성 91%... 실제 교육 경험은 28%에 불과!

- 일터 신앙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기독교인 직장인 10명 중 9명(91%)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매우 높은 욕구를 보였다.
- 그러나 최근 1년간 일터 신앙생활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은 28%에 불과해, 필요도에 훨씬 못 미쳤다.

[그림] 일터 신앙 교육·훈련의 필요성
(기독교인 직장인,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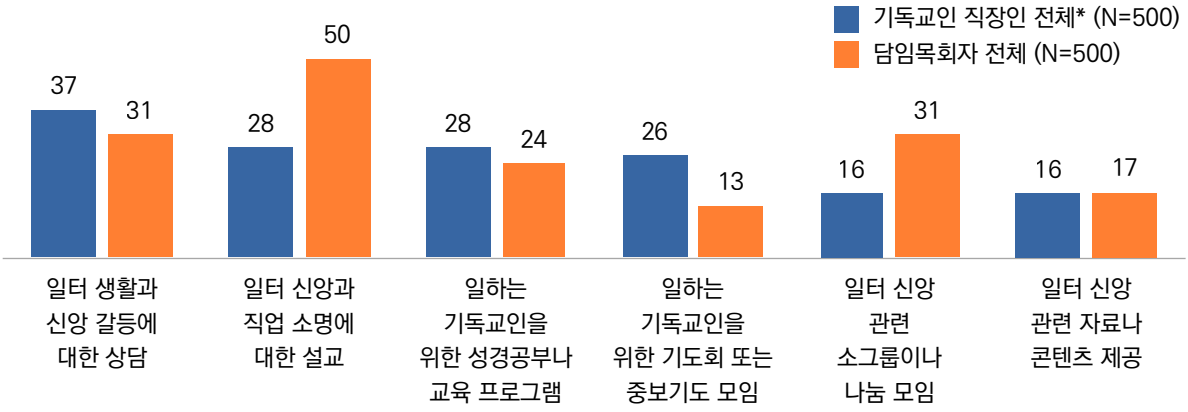
[그림] 최근 1년간 일터 신앙생활 관련 교육·훈련 경험 여부
(기독교인 직장인, N=500)



일터 신앙 지원 방안, 직장인은 '상담' vs 목회자는 '설교' 인식 높아!

- 일터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기독교인 직장인은 '일터 생활과 신앙 갈등 상담'(37%)을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담임목회자는 '일터 신앙과 직업 소명 설교'(50%)를 1순위로 꼽아 시각 차를 보였다.
- 이는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겪는 신앙적 갈등을 털어놓고 구체적인 대안을 나눌 실질적 상담 지원에 더 큰 갈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회는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상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림] 직장인의 일터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 (1+2순위, 상위 6개, %)



*기독교인 직장인 질문은 '귀하는 일터에서 겪는 신앙적 갈등을 위해 교회나 목사님이 어떤 도움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임

넘버즈 인사이트

이번호 요약

1. 직업을 소명이라 인식(67%)하나, 일터 신앙 실천(36%)과의 간극 크다!

기독교인 직장인의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직업은 소명'(67%)이라는 인식은 높은 반면, 실제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비율(36%)은 이에 미치지 못해 인식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보였다.

2. 일터 신앙 교육 필요성 91%... 실제 교육 경험은 28%에 불과!

일터 신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기독교인 직장인 10명 중 9명(91%)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매우 높은 욕구를 보였으나, 최근 1년간 일터 신앙생활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은 28%에 불과했다.

3. 일터 신앙 지원 방안, 직장인은 '상담' vs 목회자는 '설교' 인식 높아!

일터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기독교인 직장인은 '일터 생활과 신앙 갈등 상담'(37%)을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담임목회자는 '일터 신앙과 직업 소명 설교'(50%)를 1순위로 꼽아 시각차를 보였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팀 켈러의 일과 영성 (팀 켈러 저, 두란노서원)

관련 성경 구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24절)

목회 적용점

이번 일터 신앙 실태 조사 결과는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식(67%)하고 있음에도, 실제 일터에서의 신앙 실천(36%) 및 일터 신앙 교육 경험(28%)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세속적 조직문화와 갈등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적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일터 신앙 지원에 있어 목회자는 주로 '설교'(50%)를 떠올리지만, 직장인들은 구체적인 '신앙 갈등 상담'(37%)을 원하고 있어 목회적 시각 차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대안에 주목해야 한다.

일터의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찾는 실질적 상담 시스템 구축이다. 주일 설교를 넘어, 이제는 성도들이 일터에서 매일 부딪히는 구체적인 신앙 갈등과 윤리적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일터 멘토링 데이'나 '직장인 고충 나눔 소그룹' 등을 개설하여 목회자나 전문 사역자가 성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경청하고 세속적 유혹 속에서 성경적 대안을 찾도록 돕는 맞춤형 코칭 창구가 상시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회가 성도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품고 실질적인 힘이 되어줄 때, 비로소 주일의 신앙이 월요일의 일터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2025 다문화 혼인 통계



2. 구직자의 면접 경험과 입사 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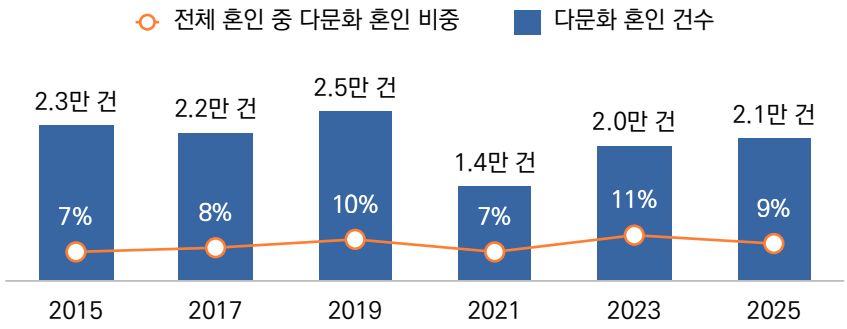


[2025 다문화 혼인 통계]

우리나라 다문화 혼인, 전체 혼인의 9%(100쌍 중 9쌍) 차지!

- 최근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다문화 인구통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다문화 혼인은 2.1만 건으로 전체 혼인의 9%(100쌍 중 9쌍)를 차지했다.
- 다문화 혼인은 2019년 2.5만 건에서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극심했던 2021년 1.4만 건까지 급감했으나, 이후 다시 반등하여 2025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다문화 혼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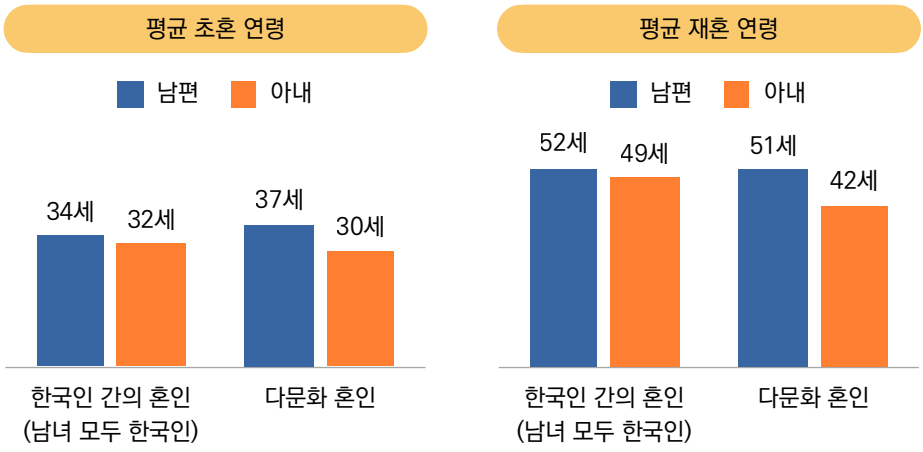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26.11.05.

다문화 혼인 남녀 연령차, '초혼 7세·재혼 9세'까지 벌어져!

- 평균 혼인 연령을 한국인 간 혼인과 다문화 혼인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초혼과 재혼 모두 다문화 혼인의 남녀 연령차가 한국인 간 혼인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초혼의 경우 한국인 간 혼인은 남편 34세, 아내 32세로 2세 차이에 불과했으나, 다문화 혼인은 남편 37세, 아내 30세로 7세 차이를 보였다. 재혼에서는 격차가 더욱 벌어져 한국인 간 혼인이 3세 차이(남편 52세, 아내 49세)인 반면, 다문화 혼인은 남편 51세, 아내 42세로 9세 차이까지 늘어났다.

[그림] 평균 혼인 연령 (2025)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26.11.05.

다문화 혼인 국적, 남편은 '미국' vs 아내는 '베트남'이 1위!

- 출신 국적별 다문화 혼인 비중(한국 국적 제외)을 보면 외국인 남편의 출신 국적은 미국(7%), 중국(6%), 베트남(4%)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아내의 경우 베트남(25%)이 가장 높고, 중국(15%), 태국(9%)이 뒤를 이었다.

[표] 출신 국적별 혼인 비중 순위* (2025, 각각 상위 3개)

남편 출신 국적	아내 출신 국적
1. 미국 (7%)	1. 베트남 (25%)
2. 중국 (6%)	2. 중국 (15%)
3. 베트남 (4%)	3. 태국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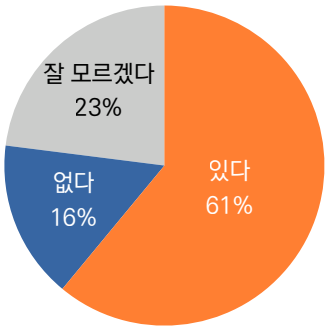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26.11.05.
*각각 한국 국적(한국인 남편 74%, 한국인 아내 19%)은 제외

[구직자의 면접 경험과 입사 포기]

Z세대 구직자 10명 중 6명, '연봉·복지 좋아도 면접 경험 나쁘면 입사 포기'!

- 최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서 실시한 Z세대 구직자 대상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61%가 '연봉과 복지가 마음에 들어도 면접 경험이 나쁘면 입사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 이는 구직자가 기업에 일방적으로 평가받는 입장에서 벗어나, 면접 과정을 통해 거꾸로 기업의 품격과 조직문화를 냉정하게 검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연봉·복지 좋아도 면접 불쾌 시 입사 포기할 의향 여부
(Z세대 구직자, N=1,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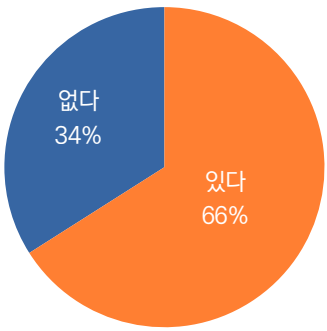


※출처 : 진학사 캐치, "연봉·복지 좋아도 면접 불쾌하면 입사 포기"… 최악의 면접 질문 1위는?, 2026.10.30.
(https://www.catch.co.kr/News/RecruitNews/297403?CurrentPage=1&Sort=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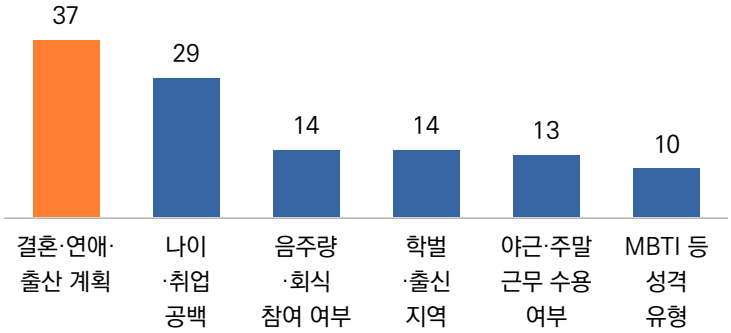
면접 중 불쾌한 질문 1위, '결혼·연애·출산 계획'!

- 면접 과정에서 불쾌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6%로, Z세대 구직자 3명 중 2명에 달했다.
- 이들이 꼽은 가장 불쾌했던 질문 내용으로는 '결혼·연애·출산 계획'(37%)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나이·취업 공백'(29%), '음주량·회식 참여 여부'(14%), '학벌·출신 지역'(14%) 등의 순으로 응답해,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이나 개인적 성향에 대한 질문이 Z세대 구직자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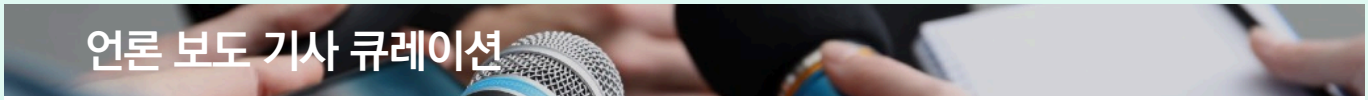
[그림] 면접에서 불쾌한 질문 받은 경험 여부
(Z세대 구직자, N=1,006)



[그림] 불쾌했던 면접 질문 내용 (불쾌한 질문 경험 있는 Z세대 구직자, 복수응답, 상위 6개, %)



※출처 : 진학사 캐치, "연봉·복지 좋아도 면접 불쾌하면 입사 포기"… 최악의 면접 질문 1위는?, 2026.10.30.
(https://www.catch.co.kr/News/RecruitNews/297403?CurrentPage=1&Sort=1)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82호 (2026년 11월 2주)
- 정당별 호감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조작기소 특검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92호 (2026년 11월 2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신뢰도, 대통령 소통 행보, 우리 사회 분야별 안전 인식

사회 일반

수도권 유일 집값 하락한 인천… 전세가는 역주행
국민일보_2026.11.16.

주택 소유 상위 10% 집값 평균 15억6천만원…하위 10% 3천만원 52배
한겨레_2026.11.16.

“모든 게 추가금, 추가금, 추가금 파티”…‘스드메 호구’ 만드는 웨딩 시장
한겨레_2026.11.14.

[단독] 지난해 문 닫은 영화 상영관 105개…역대 최대
중앙일보_2026.11.15.

[기획] AI 숙제 대행은 경계하면서, AI 상담은 어디까지 허용할까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11.3.

2026 인간관계 및 연애관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6.11.10.

아동 • 청소년 • 청년

서울청년 70% "남녀 모두 차별겪어"…"결혼싫다" 여성은 남성 두 배
연합뉴스_2026.11.15.

“돈 다 합친다고?”…청년부부 4명 중 1명 “생활비는 같이, 내 돈은 따로”
동아일보_2026.11.15.

취준생 77% "취업에 AI 역량 중요"…공식 평가하는 기업은 20%
연합뉴스_2026.11.10.

“아동 어디서 보냐고요?”…부모 비웃는 ‘차단앱 뚫기’
중앙일보_2026.11.16.

노인

노인일자리 참여자 10명 중 8명 "건강 유지·의료비 절감 도움"
연합뉴스_2026.11.15.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직장인 64.3%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 접해…직장생활에도 영향
연합뉴스_2026.11.15.

경력자 선호에 높아진 '문턱'…청년 임금근로자 46%는 비정규직
연합뉴스_2026.11.15.

국제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보다 애를 덜 낳는 시대가 왔다[딥다이브]
동아일보_2026.11.14.

건강

“한달비용 28만원”…치료 포기하는 당뇨환자들
동아일보_2026.11.14.

암 환자 낙인 인식 10년 새 개선…유전자 검사 가족 공유도 늘어
동아일보_2026.11.13.

“뱃속에서 담배 연기 맡은 아이, 사춘기때 ADHD 가능성”
동아일보_2026.11.16.

비만치료제 시장 2조 눈앞…실명 위험 속 “부작용 안내 못 받아”
한겨레_2026.11.11.

기획기사 : [빚, 청년-청춘으로 갚습니다], 국민일보

전세사기 당한 청년, 공황장애·우울증 덮쳤다 _2026.11.7.

‘갓생’ 청년 등쳐먹은 세상…‘빚생’만 남았다 _2026.11.9.

300만원 첫 신용대출… ‘1억 빚더미’로 불었다 _2026.11.10.

“빚에 미뤘던 청년의 꿈 다시 꿉니다” _2026.11.11.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윤성훈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넥스트교회교육원,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읍, 크리스챤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②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PayP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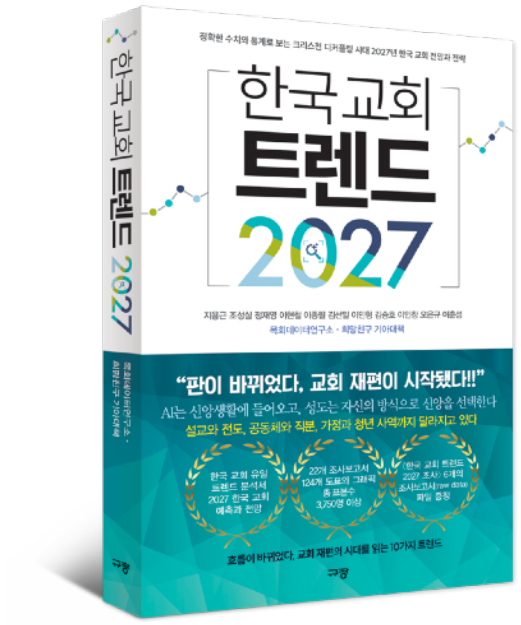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팀장

「한국교회 트렌드 2027」 책 구입 안내



1. 프롬프트 크리스천
2. 노 타이틀 성도
3. DIY 신앙
4. 아날로그 영성
5. 리얼리즘 설교
6. 전도 리포메이션
7. 느슨한 공동체
8. 대 은퇴 시대
9. 두 번째 가정
10. 고밀도 청년 사역

「한국교회 트렌드 2027」 책 구입 안내

이번에 새롭게 펴낸 「한국교회 트렌드 2027」은 저희 연구소와 기아대책이 뜻을 모아 준비한 「한국교회 트렌드」 시리즈의 다섯 번째 책입니다. 이번 책도 담임목사, 일반 성도 등 한국교회의 다채로운 현장을 담은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필되었고, 각 분야 전문가 10명이 집필에 참여하여,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10가지 주제(트렌드)를 엄선해 담았습니다.

책 구입 안내 | 책 소개 영상



목회데이터연구소 공지



라잇나우미디어 11월 웨비나

라잇나우미디어에서 11월 [데이터로 읽는 목회 트렌드, AI로 설계하는 사역 실무 전략 웨비나]에 목회자님을 초청합니다.

1) 일정 : 2026년 11월 26일(목) 14:00~16:50
2) 강사 : 주경호 목사(PastoNexus 대표, 더바이블무브먼트 교육국장)
지용근 대표(목회데이터연구소)
3) 장소 : Zoom(신청자에 한해 링크 발송)
4) 참가비 : 무료
5) 신청/문의 : 1533-7104(문자가능)

신청 링크

2026 후원 이벤트

2026년 11월 5일~11월 16일까지 후원 이벤트를 통해(정기후원 26건, 일시후원 19건) 저희 연구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더바이블교회(담임목사 신용길), 전주완산교회(담임목사 유병근), 은광교회(담임목사 한동준)

[개인]
고영실, 구형모, 김기수, 김기하, 김석희, 김세훈, 김 철, 김현우, 남기환, 노원경, 명대성, 박검섭, 박광호, 박병규, 박재우, 박창현, 박현기, 서기월, 신덕재, 신연희, 어수강, 유동근, 이병로, 이상근, 이상성, 이용근, 이은희, 이진욱, 이화정, 임복규, 임원빈, 임창수, 장황규, 전영삼, 정신일, 조선근, 조인옥, 지정화, 최진수, 최형규, 최혜숙, 함윤미

Addr.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기독교TV멀티미디어센터 9층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